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19권 제1호(2015년 4월)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5 ; 19(1) : 1-10

1개 한의대 학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김지영 · 이재혁*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 Medical Students toward Career Choice as a Korean Medicine Doctor

Ji-young Kim & Jae-hyok Lee*
Dep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 medical students toward career choice as a Korean medicine doctor.

Method : The subject were 89 Korean medical students. Question investigation was applied. The questionnaire in this study contained 20 question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toward career choice as a Korean medicine doctor.

Results : Korean medical students showed higher interest in clinical practice, most of students(80.9%) answered they have planning for life's work as practicing Korean medicine doctor. First ranking as career they want is the pay doctor(36.2%), second is the intern(27.0%) as Korean medicine doctor within one year. The average age of stu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ope to be intern is lower than who did not. Female students who hope to be intern preferred internal medicine, gynecology and pediatrics. But male students who hope to be intern preferred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and rehabilitation.

Conclusion : The result suggests that Korean medical students have an affirmative perception toward clinical doctor, but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e other career.

Key words : career choice, Korean medicine, medical specialty choice

• 접수 : 2015년 2월 9일 • 수정접수 : 2015년 2월 27일 • 채택 : 2015년 3월 10일
*교신저자 : 이재혁, 충북 충주시 봉방동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전화 : 043-841-1736, 팩스 : 043-856-6295, 전자우편 : yuean69@hanmail.net

I. 서 론

개인의 행복은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진로 선택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1]. 의사와 한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이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이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점[2]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진로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방 의료계의 경우 1952년에 이미 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각 전문과목별로 봉직과 개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한의학계는 2000년에 이르러 한방 전문의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으며[3], 한의대생의 진로선택은 이 때를 기점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졸업 직후 한의대생의 진로는 한의원 부원장, 개원의, 수련의 및 기타 직종(기초의학교실 조교직, 공중보건의, 연구소 연구직, 공공보건기관, 보건행정관료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아직 양방 의료계에 비해 전문의 제도의 시행이 오래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전문의 제도가 정착해가는 단계이며, 한의대 졸업생은 전문 수련의 지원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의대생의 진로선택 양상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의학 계열에서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는 의사를 대상으로[4] 이루어졌으며, 의학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대생을 중심으로[5-7]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한의대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는 한의대 예과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8]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추후 한의사로서 국민 보건의 주체가 될 한의대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한의학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진로결정 및 진로선택 요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13년 11월 22일과 2014년 12월 26일에 해당년도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4학년 2학기 재학생 90명 중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세명대학교 충주한방병원의 IRB 승인(승인번호 : IRB No.1311-07)을 받은 후, IRB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취약한 피험자 관련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는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간에 자의에 의하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모집하였으며, 연구 책임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모집

학과 게시판 및 병원 내 게시물을 통해 공고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자의에 의해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동의 확보 시에는 연구대상자에게 설명문을 제시했으며, 참여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제외 기준

연구대상자 중 설문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자와 설문 과정 중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를 제외 기준으로 삼았다. 설문 조사에 동의하였으나 설문 조사 기간에 설문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1명이 제외되었다.

3) 연구 도구

진로와 관계된 기존 연구에서 임 등[7]은 의대생의 전공 선택 관련 변인, 최[4]는 수련병원 인턴의 전공 과목 선택 요인, 권[9]은 의대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문을 사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4,7,9]를 기준으로 진로선택 및 진로선택 요인에 대한 설문 중에서 한의대생의 진로 인식 및 태도 조사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하고 한의대생에게 알맞게 변형하여 한의학 전문의 3인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다.

졸업 직후(1년 이내) 진로는 기초의학교실 조교직, 병원 수련의, 공중보건의, 휴식, 개원, 부원장, 연구소 연구직, 해외의료봉사,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평생 직업은 개원의, 병원 임상교수, 기초학 교수, 연구소 연구직, 공공보건기관 근무, 보건행정관료, 해외의료봉사, 기타로 나누어 설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

생직업'은 '임상수련과정 등 졸업 후 한의사로서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은 후 희망하는 진로'를 뜻한다.

권[9]은 독립변수인 인구학적 특성 및 입학동기 특성과 종속변수인 희망 진로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최[4]는 독립변수인 인구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인 전문과목 선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 연구[4,9]를 기준으로 독립변수인 인구학적 특성과 종속변수인 졸업 직후 진로 및 평생 직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과 전문과목 선택 간의 관계 및 졸업 직후 수련 지원 여부와 평생 직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자가기입식 설문방식을 채택하였으며, 5개 대항목과 20개의 세부항목으로 만들어졌다. 5개 대항목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졸업 후 직후 진로 및 평생 직업, 진로선택 시 중요 요인, 연구직 및 기초의학교실 조교직에 대한 태도, 대학원 진학에 대한 태도, 병원 수련 및 전문과목 진로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문항은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총 20개의 세부 항목 중 진로선택 시 고려사항, 추후 공부를 희망하는 기초의학 교실 분야, 병원 수련 시 전공 과목 선택은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4) 통계적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세부 항목별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졸업 후 진로의 차이와 수련의 지원 여부에 따른 평생 직업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으며, 수련의를 지원하는 군과 수련의를 지원하지 않는 군 간의 평균 연령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결 과

1. 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47명(52.8%), 여자가 42명(46.2%)이었으며, 연령은 25~29세가 56명(62.9%), 20~24세가 22명(24.7%), 30세 이상이 11명(12.4%)이었다. 대상자의 고교 재학 시 계열은 문과 53명(59.6%), 이과 35명(39.3%), 기타 1명(1.1%)이었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General Subjects

		N	%
Gender	Male	47	52.8
	Female	42	47.2
Age	20-24	22	24.7
	25-29	56	62.9
	Over 29	11	12.4
Curriculum of Highschool	Liberal arts	53	59.6
	Natural sciences	35	39.3
	The others	1	1.1
	Total	89	100.0

2. 희망하는 평생 직업 및 졸업 직후(1년 이내) 진로

평생직업은 '개원의' 72명(80.9%), '공공보건기관(보건소나 보건지소)', '해외의료봉사' 각 3명(3.4%), '보건행정관료', '병원 임상교수' 2명(2.2%), '기타' 1명(1.1%) 순이었다(Table 2).

졸업 직후(1년 이내) 진로는 '부원장' 29명(32.6%), '수련의(인턴 과정)' 24명(28.1%), '군입대(공중보건의)' 23명(25.8%), '개원의' 5명(5.6%), '휴식' 3명(3.4%), '연구직', '기타' 각 1명(1.1%) 순이었으며, 기초의학교실 조교직, 공공보건기관 근무, 보건행정관료를 희망하

Table 2. Life's Work

		N	%
Work	Practicing Korean medicine doctor	72	80.9
	Hospital clinic instruction	2	2.2
	Basic science professor	1	1.1
	Research worker	0	.0
	Public health facility	3	3.4
	Health and Administrative officer.	2	2.2
	Oceans medical services	3	3.4
	The others	3	3.4
	Missing	3	3.4
	Total	89	100.0%

Table 3. Career within one Year

		N	%
Career	Basic medicine lecture room	0	.0
	intern	24	27.0
	Enlistment (a public health doctor)	23	25.8
	Rest	3	3.4
	Practicing Korean medicine doctor	5	5.6
	Pay doctor	29	32.6
	Research worker	1	1.1
	The others	1	1.1
	Missing	3	3.4
	Total	89	100.0%

Table 4. Correlation of Career within one Year with Gender

	N(%)	N(%)	Chi-Square Tests	
	Male	Female	Asymp. Sig.	Exact Sig.
Basic medicine lecture room	0(.0%)	0(.0%)	.000*	.000*
Intern at hospital	10(41.7%)	14(58.3%)		
Enlistment (a public health doctor)	23(100.0%)	0(.0%)		
Rest	1(33.3%)	2(66.7%)		
Practicing Korean medicine doctor	4(80.0%)	1(20.0%)		
Assistent director	6(20.7%)	23(79.3%)		
Research worker	1(100.0%)	0(.0%)		
The others	1(100.0%)	0(.0%)		
Total	46(53.5%)	40(46.5%)		

P value calculated by Pearson Chi-Square.

* p<0.05

Asymp.Sig.: Asymptotic Signor, Exact Sig.:Exact Signor

8 cells (57.1%)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47.

Table 5. Correlation of Life's Work at Hospital with Appling for intern

	N(%)	N(%)	Chi-Square Tests	
	I apply for intern	I don't apply for intern	Asymp. Sig.	Exact Sig.
Practicing Korean medicine doctor	15(21.4%)	55(78.6%)	.006*	.004*
Hospital clinic instruction	1(50.0%)	1(50.0%)		
Public health facility	3(100.0%)	3(100.0%)		
Health and administrative officer.	2(100.0%)	0(.0%)		
Oceans medical services	3(100.0%)	0(.0%)		
The others	1(33.3%)	2(66.7%)		
Total	25(29.1%)	61(70.9%)		

P value calculated by Pearson Chi-Square.

* p<0.05

Asymp.Sig.: Asymptotic Signor, Exact Sig.:Exact Signor

10 cells (83.3%)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53.

는 대상자는 없었다. 졸업 직후 진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4).

희망하는 평생 직업을 대상자의 수련의 지원 여부와 연관해 살펴보면, 평생 직업은 수련의 지원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able 5).

3. 진로선택 시 중요 요인

진로선택 시 의견을 구하는 대상은 '부모님 또는 가족' 29명(32.6%), '학교 동기 및 선배' 28명(31.5%), '대학 졸업 선배' 15명(16.9%), '관심 학회의 한의사' 4명(4.5%), '기타' 3명(3.4%), '대학교수' 2명(2.2%) 순이었다(Table 6).

진로선택 시 중요한 3가지 고려사항(복수응답)은 '경제적 문제' 74명(88.1%), '학문적 관심' 58명(69.0%), '결혼' 40명(47.6%), '사회적 지위' 37명(44.0%), '병역문제' 10명(24.8%), '학부 성적' 9명(10.7%), '기타' 6명(7.1%) 순이었다.

4. 연구직 및 기초의학교실 조교직에 대한 태도

연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1명(1.1%)이었으며, 기초의학교실 조교직을 희망하는 학생은 없었다. 대상자들이 기초의학교실 조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의가 더 매력적이므로' 42명(47.2%), '공부와 연구에 대한 부담감' 16명(18.0%), '경제적 문제' 9명(10.1%), '교수로 남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7명(7.9%), '기타' 3명(3.4%) 순이었다.

10가지 기초의학교실 분야 중에 추후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 3가지(다중응답)는 '방제학' 48명(62.3%), '진단학' 40명(51.9%), '경혈학' 32명(41.6%), '본초학' 30명(39.0%), '병리학' 19명(24.7%), '생리학', '해부학', '예방의학' 각 12명(15.6%), '원전학' 5명(6.5%), '의사학' 2명(.9%) 순이었다.

5. 대학원 진학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의 대학원 진학은 '기회가 되면 하겠다' 47명(52.8%), '반드시 하겠다' 22명(24.7%), '하지 않겠다' 12명(13.5%), '잘 모르겠다' 8명(9.0%) 순이었다(Table 6).

대학원 진학에 긍정적으로 답한 대상자가 희망하는 대학원 과정은 기초의학교실 '29명', '임상의학교실' 30명(43.5%) 순이었으며, 희망하는 과목은 '진단학', '한방부인과' 각 13명(18.8%), '방제학' 6명(8.7%),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5명(7.2%), '침구과' 4명(5.8%), '원전학' 3명(4.3%),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생리학' 각 2명(.9%) 순이었다.

6. 병원 수련 및 전문과목 선택에 대한 태도

3개 과목 다중응답이 가능한 문항에서 수련의를 희망한다고 답한 대상자가 선호하는 전문과목은 '한방부인과' 10명(47.6%), '한방내과', '침구과' 각 8명(38.1%), '한방재활의학과' 7명(33.3%),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각 6명(28.6%), '사상체질과' 2명(8.3%) 순이었다.

3개 과목 다중응답이 가능한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전문과목 선호도는 한방내과가 여성 6명(75.0%), 남성 2명(25.0%) 순이었고, 부인과는 여성이 10명(100%), 소

Table 6. Major Consideration When Choosing a Career

		N	%
Consideration	Economical problem	74	31.6
	Marriage	40	17.1
	Problems of military service	10	4.3
	Academic interest	58	24.8
	Undergraduate grades	9	3.8
	Social status	37	15.8
	The others	6	2.6
	Total	234	100.0

아과는 여성이 6명(100%), 신경정신과는 남녀 각각 3명(50.0%), 침구과는 남자 5명(62.5%), 여자 3명(37.5%), 안비인후피부과는 남성 4명(66.7%), 여성 2명(33.3%), 재활의학과는 남성 4명(57.1%), 여성 3명(42.9%), 사상체질과는 여성이 2명(100%)이었다(Table 7).

수련의를 희망하는 대상자의 전문 수련 과목 선택 이유는 '학문적 관심' 16명(64.0%), '적성에 맞음' 2명(8.0%), '개업에 유리함' 1명(4.0%) 순이었고, '삶의 질', '주변의 권유', '사회적 위상', '기타'에 답한 대상자는 없었다.

병원 수련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대상자가 수련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수련 기간이 너무 길어서' 20명(27.0%), '임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15명(20.3%), '나이가 많아서' 7명(11.7%), '경제적 문제', '건강 상의 이유로' 각 4명(5.4%), '과중한 업무' '기타' 각 3명(4.1%), '성적 미달', '결혼', '교수로 남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각 1명(1.4%) 순이었다.

수련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대상자가 추후 임상에서 전문적으로 진료하고자 하는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 16명(21.6%), '부인 및 소아질환' 15명(20.3%), '내과질환' 9명(12.2%), '피부 개선 및 비만 치료' 6명(8.1%), '희귀병' 4명(5.4%), '정신과질환' 3명(4.1%), '노인병' 2명(2.7%) 순이었다. 이와 같이 생각한 이유는 '학문적 관심' 34명(45.9%), '높은 수익이 기대되므로' 14명(18.9%), '기타' 10명(13.5%), '전문과목의 사회적 위상' 3명(4.15%) 순이었다.

Table 7. Graduate School Advancement

		N	%
Advancement	I must be to go	22	24.7
	I'll go if I have a chance	47	52.8
	I don't make go	12	13.5
	I don't know	8	9.0
	Total	89	100.0

Table 8. Correlation of Gender with Preference for the Department of Korean Medical Hospital

	N(%)	N(%)
	Male	Femal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2(25.0%)	6(75.0%)
Department of gynecology	0(.0%)	10(100.0%)
Pediatrics	0(.0%)	6(100.0%)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3(50.0%)	3(50.0%)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5(62.5%)	3(37.5%)
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dermatology	4(66.7%)	2(33.3%)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4(57.1%)	3(42.9%)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0(.0%)	2(100.0%)
Total	18(34.0%)	35(66.0%)

Table 9. Means Scores, Age according to Internship at Hospital

	N(%)	Age(Mean±S.D.)	t-test
			p-value
I apply for intern	24(27.9%)	25.46±0.932	.011*
I don't apply for intern at hospital	62(72.1%)	28.24±8.190	

P value calculated by Student t-test

* $p<0.05$

S.D. : Standard Deviation

수련의 지원 여부와 대상자의 연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평균 25.46세, 수련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균 28.24세로 연령에 따른 수련 희망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9).

Ⅳ. 고 찰

높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더불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의료인이라는 직업은 적절한 의료 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복지분야, 법조계, 언론계, 제약 분야뿐 아니라 환경, 인권, 생명윤리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2].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선택은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게 하기 때문에 예비 의료인인 한의대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이루어진 한방 전문의 제도로 인해 한의대생의 진로선택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의사 전문의 제도가 1952년에 도입된 데 비해 한방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 이르러 시행되기 시작하여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과로 전문 수련 과목이 정해졌다[3]. 한의대 졸업생의 수련의 지원율이 의대 졸업생보다 낮으며, 수련을 하는 경우 수련 전문 과목이 양방 수련 병원과 다르기 때문에 한의대생은 의대생과 다른 진로선택 양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한의사의 진로는 개원의, 병원임상교수 및 기타 직종(기초학 교수, 연구소 연구직, 공공보건기관 근무, 보건행정관료, 해외의료봉사 등)으로 분류되며, 졸업 직후 한의대생의 진로는 한의원 부원장, 개원의, 수련의 및 기타 직종(기초의학교실 조교직, 공중보건의, 연구소 연구직, 공공보건기관 근무, 보건행정관료 등)으로 분류된다.

의료인으로서의 진로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의대를 중심으로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존 의학계열의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수련병원 인턴[4]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의학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생[10], 치의학전문대학원생[11]도 있었지만 의대생[5-7]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진로선택 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교육과정, 경험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12,13]가 대부분이었으며, 국내에서 선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의대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8]와 특정 전문과와 관련된 인식 및 진로를 조사한 연구[14], 예과생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지원동기를 분석하는 연구[15]가 있었으며, 졸업 후 전문 과목 선택에 관한 연구[5,7,16]가 다수 있었다. 그 외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연구[17]가 있었다.

이에 반해 같은 제도권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역할이 기대되는 한의대생의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는 한의대 예과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8]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진로결정수준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조건을 감안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지점을 말하며[18]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준이 향상된다[19]. 이에 본 연구는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후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교육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의대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52.8%, '여자' 47.2%였으며, 연령은 '25~29세' 62.9%, '20~24세' 24.7%, '30세 이상' 12.4% 순이었다. 대상자의 고교 재학시 계열은 '문과' 59.6%, '이과' 39.3%, '기타' 1.1% 순이었으며, 종교는 '무교' 48.3%, '개신교' 24.7%, '불교' 15.7%, '천주교' 11.2% 순이었다(Table 1).

희망하는 평생 직업에 대해 '개원의'라고 답한 대상자는 80.9%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졸업 직후(1년 이내) 진로에 부원장 32.6%, 수련의 27.0%, 공중보건의 25.8%, 휴식 3.4%, 개원의 5.6%, 연구직, 기타 각 1.1% 순으로 답했다. 이를 통해 임상의를 선호하는 대상자의 태도를 알 수 있었다(Table 2, 3).

개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졸업 직후(1년 이내) 개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32.6%였고, 평생 직업으로 개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80.9%였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졸업 후 1년 이내 개원 희망자는 없었고, 평생 직업으로 개원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100%인 것과 비슷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병원 임상교수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35.1%, 개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37.7%였다. 이는 의대생에 비해 한의대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개원에 적극적이며, 기타 진로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병원 임상교수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의대생의 경우 35.1%에 달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2.2%의 대상자만이 병원 임상교수를 희망했다. 이는 한의대생과 달리 대부분의 의대생이 수련의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의대에 비해 병원 임상교수 지원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Table 2, 3).

진로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3가지 다중응답이 가능)은 '경제적 문제'가 88.1%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예과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 한의과대학 지원 동기는 '직업 안정성'이 2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한의과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 대상자들의 진로선택 시 고려사항에 변화 요인이 없었다고 해석된다(Table 6).

연구직 및 기초의학교실 조교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연구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1명이었고, 기초의학교실 조교직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없었다. 기초의학교실 조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임상의가 더 매력적이므로'가 47.2%로 가장 많았고, 이를 통해 한의대생은 연구직보다는 임상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방병원, 한의원 근무 외의 기타 진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졸업 직후 기타 직종(연구직, 기초의학교실 조교직, 공공보건기관 근무, 보건행정관료, 기타)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2.2%였으며, 평생 직업으로 기타 직종(기초학 교수, 연구소 연구직, 공공보건기관 근무, 보건행정관료, 해외의료봉사 등)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9%였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7%의 대상자가 기타 직종을 희망한다고 답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며,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27.2%의 대상자가 병원 수련 과정을 마친 후 진로로 기타 직종을 희망한다고 답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한의대생과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의대생에 비해 기타 직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3).

대학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대학원 진학은 '기회가 되면 하겠다' 52.8%, '반드시 하겠다' 24.7%, '하지 않겠다' 13.5%, '잘 모르겠다' 9.0%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74%의 학생이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반드시 하거나 혹은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답한 결과와 비슷하며, 이는 의대생과 한의대생 모두 지속적 연구와 학위취득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Table 7).

수련의 지원여부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수련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여성 14명(58.4%), 남성 10명(41.7%)이었다. 한의대생 중 수련의를 지원하는 대상자는 여성이 많았지만, 성별에 따라 수련의 지원여부가 의미 있게 다르지 않았다($p \geq .05$).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수련의 지원이 남녀간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Table 8).

수련의 지원 여부와 연령과의 관계를 대해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수련 희망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1]에서 수련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수련을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0.7세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 \geq 0.05$)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Table 9).

평생 직업을 수련의 지원 여부와 연관해 살펴보면, 평생 직업은 수련의 지원 유무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랐다. 특히 개원의를 희망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수련의를 희망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생 직업으로 개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병원 수련에 관심이 적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수련의 희망자들이 전문과목 수련 선택 이유로서 '학문적 관심'을 64%로 과반수가 답했다는 점과, '개업이 유리함'이 4%로 소수만이 답했다는 점과 연관지을 수 있다(Table 5).

수련의 희망자의 전문과목 선호도(3가지 다중응답가능)에 대해 살펴보면, 선호하는 전문과목은 '한방부인과' 10명(47.6%), '한방내과', '침구과' 각 8명(38.1%), '한방재활의학과' 7명(33.3%) 순으로 희망하였는데, 이는 서울 지역 양방 수련 병원 인턴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 내과 103명(27.8%), 정형외과 37명(10.0%), 소아과 33명(8.9%) 순으로 희망했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수련의 희망자의 전문과목 선택 이유 역시 차이가 있었는데, 한의대생은 '학문적 관심'이 6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적성에 맞음' 8.0%, '개업에 유리함' 4.0% 순이었는데, 이는 수련병원 인턴을 대상으로 한 연구[4]에서 '적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 및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Table 6).

전문과목 선호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수련의를 지망하는 여성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3개 과는 부인

과, 소아과, 내과였고, 수련의를 지망하는 남성 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3개 과는 침구과, 재활의학과, 안이비인후피부과였다. 이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5]에서 내과계와 외과계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2.97배 내과계를 선호한다는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 연구에서 여성이 선호하는 부인과, 소아과, 내과는 내과계 과에 속한다는 점에서 의대생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0]에서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과는 내과이고 소아과, 부인과, 일차 진료가 그 뒤를 이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Table 8).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1개 한의과대학의 4학년생 89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진로에 대한 전체 한의대생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기존 연구가 의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는 주로 의대생에 대한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의대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졸업 후 전공 과목 선택에 대한 연구인데 반해, 한의대생은 졸업 후 수련의를 지원하는 대상자가 28.1%에 불과하므로, 전공 과목 선택 연구가 대부분인 의대생의 연구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련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28.1%로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의 병원 수련 및 전문과목 선택에 대한 태도를 한의대생의 태도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한의대생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고찰 및 현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기타 기관 근무 현황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여, 진로선택 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

V. 결 론

진로선택에 대한 한의대생의 인식과 태도 연구를 위하여 세명대학교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희망하는 평생 직업에 대해서 한의대생 대부분이 '개원의'라고 답했으며(80.9%), 졸업 직후(1년 이내) 진로는 부원장 1위(32.6%), 수련의 2위(27.0%), 공중보건의 3위(25.8%)로 답했다.
2. 진로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3가지 다중응답이 가능)은 '경제적 문제'가 가장 많았다(88.1%).
3. 병원 수련 여부와 연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련을 희망하는 경우 평균 25.46세, 수련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평균 28.24세로, 연령이 낮은 대상자가 연령이 높은 대상자보다 병원 수련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수련의 희망자의 희망하는 전문과목(3가지 다중응답 가능)과 성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 대상자가 선호하는 3개 과는 부인과, 소아과, 내과, 남성 대상자가 선호하는 3개 과는 침구과, 재활의학과, 안이비인후피부과였으며, 여성은 내과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 사회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로의 진출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은 졸업 직후 수련의나 기초의학교실 조교직, 기타 진로(연구소 연구직, 해외의료봉사, 보건행정관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의과대학 졸업 이후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개인적으로 학회나 강연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한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는 졸업 직후 진로가 병원 수련의나 연구소 연구직, 기초의학교실 조교직 등 한의사로서 필요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분히 전문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 진료에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차후 진로선택에 있어 다양한 진로에 대한 선택을 촉구하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입니다.

참고문헌

1. 박종원, 김선희, 허창구, 김완석. 직업 심리학. 서울:학지사. 2009:15-31.
2. 김종연, 감신, 강윤식, 조용기, 이상원, 진대구, 안

순기, 천병렬, 예민해. 개원의사와 개원한의사의 전문직업성, 직무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 대한예방의학회:2004:37(1):44-50.
3. 이현지, 신순식, 성현제. 한의학의 전문화과정. 제3의학:2000:5(2):277-285.
4. 최금숙. 전공의의 수련병원 및 수련과목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1-63.
5. 김형준, 박서진, 김정은, 박은철, 이후연. 의과대학생의 전공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의학교육:2003:15(2):151-61.
6. 박정한, 김경환, 전혜리.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에 대한 인식조사;2.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계획. 한국의학교육:1999;11(2):365-78.
7. 임기영, 조선미. 의과대학생의 전공 선택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의학교육:2002:14(2):269-86.
8. 진성미, 박선주. 한의과대학 예과생의 진로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2013:17(3):47-61.
9. 권성준. 의과대학생들의 희망진로 변화실태와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1-51.
10. 차민경. 의학전문대학원생의 특성 중 전공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1:1-47.
11. 강수현. 치의학 전문대학원생의 향후 진로선택에 미치는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1-34.
12. Dale A, Newton, Martha S, Grayson, Theodore W. What Predicts Medical Student Career Choice? Jo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998:13(3):200-3.
13. Mahendran R, Lim HA, Verma S, Kua EH. The Impac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n Career Choice and Attitudes toward Psychiatry. Med Teach. 2015;19;1-4.
14. 김정희, 배철영, 신동학. 의과대학생의 가정의학에 대한 인식도 및 진료에 대한 조사. 계명의대논문집:1992:11(3):466-72.
15. 강복수, 김석범, 황태윤. 대구지역 의예과 학생들의 의과대학 지원동기에 대한 조사. 한국의학교육:1994:6(1):9-19.
16. 이지혜, 김건일, 박귀화, 윤소정. 의학전문대학원생과 의과대학생의 전문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의학교육:2009:21(4):394-402.
17. 안혜진, 김은정, 황진영, 이승희. 의과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한국의학교육:2014:26(3):209-16.
18. 이성식, 정철영.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한국농업교육학회지:2007:39(4):83-109.
19. 박현창.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수준간 관계 분석.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4:1-64.
20. Buddeberg fishcer B, Klaghofer R, Abel T, Buddeberg C. The influence of Gender and Personality Traits on the Career Planning of Swiss Medical Students. Swiss Med Wkly. 2003:133:535-40.